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임을 간과한다
- ② 도덕 추론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임을 간과한다
- ③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임을 강조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객관적 서술임을 강조한다
- 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침의 제시임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담론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된 진술을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ㄴ.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
  - ㄹ.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그러한 삶이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을: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윤회(輪廻)를 끝낼 수가 없다.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겪는다.

- ① 갑: 죽음은 고통이므로 죽음을 최고의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
- ② 갑: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을: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④ 을: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됨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법은 강제 권한과 결합되어 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p> <p>을: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사형은 권리일 수 없다.</p> <p>병: 법은 일반 의지의 반영이다.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되며,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다.</p>
(나)	

- ① A, F: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② B: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 ⑤ E: 형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神)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 ① 갑: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 ② 갑: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③ 을: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을: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연명 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라도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도 죽음을 앞당겨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 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 ②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비도덕적 행위인가?
- ③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 시행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가?
- 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한가?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나)	

— < 보 기 > —

ㄱ. A: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ㄴ. B: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ㄷ. B: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ㄹ. C: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적 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나) 성적 행위는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인격 존중의 의무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와 해약 금지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행된다.

- ① (가):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 ② (가): 성적 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 ③ (나):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 ④ (나):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한다.
- ⑤ (가)와 (나):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을: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 보 기 > —

ㄱ. 갑: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ㄴ. 갑: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ㄹ. 갑과 을: 국가는 불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 ① 갑: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 ③ 을: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을: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쾌락의 산출과 고통의 회피는 개인은 물론이고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 사례 >  
국회의원 A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딥페이크가 가짜 뉴스나 음란물 제작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창작 활동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딥페이크(deepfake):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 ①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세요.
② 법안의 효용을 고려하기보다 의무 의식에 따라 결정하세요.
③ 기술이 가져올 해악이 아닌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④ 기술의 활용 결과가 아닌 개발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⑤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훌륭한 목민관이 되려는 자는 어질어야 하고, 어질고 싶은 자는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 싶은 자는 검소해야 하니 절용(節用)은 목민관의 첫 번째 의무이다.
○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음에 두려움을 간직해야 방자하지 않게 된다.

- ① 공직자는 청렴이 본연의 덕이며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② 공직자는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한다.
③ 공직자는 법을 지키며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⑤ 공직자는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위세를 앞세워야 한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을: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물론이고,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갑: 각 국가는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② 갑: 어떤 경우에도 타국인을 적대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③ 을: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④ 을: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실현된다.
⑤ 갑과 을: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4.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화 산업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소비자로부터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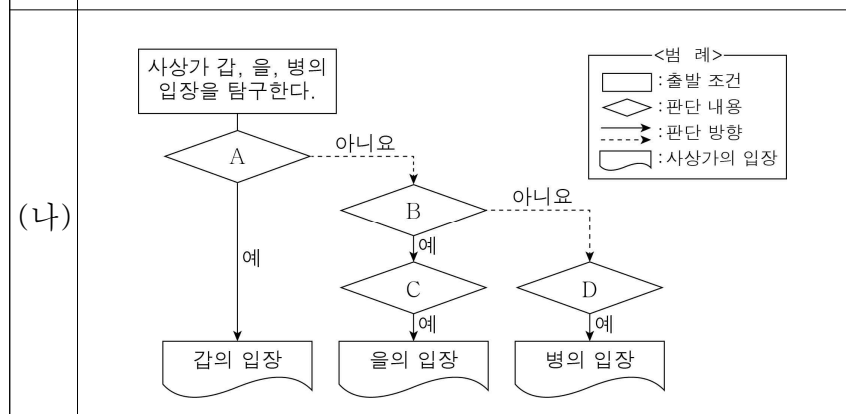


< 보기 >  
ㄱ. 문화 산업은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체험 활동을 보장한다.
ㄴ.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ㄷ. 문화 산업의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
ㄹ.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대중이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種) 차별주의를 피하면서 꽤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병: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 보기 >  
ㄱ. A: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ㄴ. B: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ㄷ. C: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ㄹ. D: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을: 정언 명령은 어떤 행위를 그 자체로서,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으로서의 필연성을 가진다.

- ① 갑: 덕에 따르는 삶을 위해 공동체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한다.
- ③ 을: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④ 을: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보 기 >

- ㄱ.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 ㄴ.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 ㄷ.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
- ㄹ.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다. 그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 ①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되어 있다.
- ②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을 신 그 자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 ③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다.
- ④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 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19.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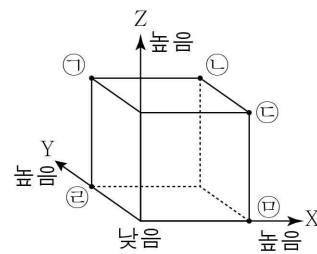
**칼럼**

뉴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 동료 간의 원치 않는 온라인 친구 신청, 동의 없는 단체 대화방 초대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윤리 의식 함양과 함께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한다.
- ②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④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 ⑤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 (나)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X: 과학자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